초고령사회 대응…나주 '치매 통합돌봄' 본격 시동

100세 안심경로당 180곳 지정…매주 돌봄관리사 파견
맞춤형 인지 증진 프로그램 운영·치매환자 가정 방문 등

나주시가 마을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38명의 100세 돌봄 관리사를 위촉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초고령사회의 난제인 치매 예방을 위해 마을 경로당 중심의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서비스'에 본격 착수한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은 치매 환자들이 물리·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치매 고위험군 주민 비율이 높은 마을 경로당을 치매 통합돌봄서비스 거점인 100세 안심 경로당으로 지정, 이곳으로 매주 돌봄 관리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사 이화실에서 치매통합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100세 돌봄 관리사' 위촉식을 열어 노인 돌봄, 복지 관련 자격증 소지자 38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치매 관리 최전선인 100세 안심 경로당에 파견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매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응답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00세 안심 경로당은 치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 경로당 180곳(농촌형172·도시형8)이 지정, 운영된다.

한 곳당 10명씩을 돌봄 대상자로 선정해 총 1천80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돌봄 관리사들은 매주 안심 경로당을 찾아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치매 친화적 공동체 형성을 위해 환자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 주민들도 함께 참여한다.

매월 1회 치매환자 가정에도 방문해 대상자 징후와 안부를 살펴 치매 조기 예방에도 힘쓴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나주시 관내 60세 이상 인구는 3만7천737명으로 전체 인구(11만7천72명)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만 60세 이상 시민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추적, 진단, 치료에 걸친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경증·중증환자별 인지 강화 프로그램, 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치매인식개선활동 등 다양한 치매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치매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최대 3만원(연 36만원)의 약값과 무릎보호대, 미끄럼 방지 양말, 기저귀 등 조호물품 6종을 연 2회에 걸쳐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치매 관련 문의는 나주시치매안심센터(061-339-2132),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하면 된다.

윤병태 시장은 "치매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병 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치매 환자들의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관리사들의 적극적인 사명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순항'

공정률 15%…총사업비 2천464억 투입, 2025년 상반기 준공 목표

해양경찰청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설 중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15%이며 공장, 상가시설 등 주요 수리시설은 내년 10월 완료 예정으로 공작장비 및 시험·측정장비, 산업기계 등 운용장비 예산(1차) 153억원을 확보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사업은 개발부지 76만330㎡(2만3천평), 유보지 2만3천140㎡(7천평), 건축면적 22만4천793㎡(6천800평) 규모로 공사기간 7년(2019-2025년), 총 사업비 2천46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10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승인을 받고 11월부터 사업부지 벌목, 케이슨·콘크리트 블록 제작 등 토목공사와 안벽·호안 설치를 위한 기초준설, 기초사석 투하 등 수중공사에 착수했다.

서부정비창에는 해양경찰 최초 5천t급 대형함정을 상가할 수 있는 플로팅도크를 도입해 해양경찰 경비함정 수리지원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정비창이 개창되면 약 3천11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9천8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한국개발연구원, 예타 결과)는 물론 정비창 수리 업무로 방문하게 될 인원이 연간 8만명에 이르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전망된다.

양종타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신설추진단장은 "서부정비창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2024년 시범운영을 계획 중으로 플로팅도크 등 장비 운용과 관련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서부정비창 조감도(위), 기초준설 현장(아래). 〈해양경찰청 제공〉

무안군,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투자 유치

(주)휴먼아이티솔루션과 신사옥 건립 등 239억 투자협약

무안군은 "최근 군청사에서 김산 무안군수, 최봉두 (주)휴먼아이티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 개발·신사옥 건립 등을 위한 239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18년 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정보기술(IT) 전문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요소인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건강 관리, 지능형 공장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또 지난해 개발한 치매 예방 가상현실 시스템 플랫폼인 '팔팔케어'는 조달청 우수품목으로 지정됐고 최근 24시간 확장현실 기반 디지털 헬스장 '티온케어'는 서울 강남구청에 1호점을 오픈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주)휴먼아이티솔루션은 지역 청년 인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무안에서 매출 1천억원 달성과 2025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건실한 기업이다.

군은 이번 투자유치로 침체한 지역 정보기술(IT)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이 무안군 정보기술(IT) 산업 발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주)휴먼아이티솔루션에 감사하며 사업 성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강진군, 굴·바지락·전복·뱀장어 등 안전성 검사

日 오염수 방류…수산물 불안 해소 나서

강진군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수산물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굴, 바지락, 전복, 뱀장어 등을 채취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 중이며 6-7월에는 조사 품목을 확대하고 검사량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년 200개 정도의 원산지 표시판을 수산시장 및 위판장에 배부해 오던 것을 올해는 300개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 활가리비, 산 우렁쉥이 등을 중점으로 음식점 및 소매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6-7월 특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되고,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홍보도 적극 병행한다.

군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제공을 위해 지난 2일 대구 하저항에서 점농어 6만9천7미를 방류했고, 감성돔 13만4천611미를 이달 중순 방류해 안전한 수산자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강진의 수산 환경을 지켜 믿을 수 있는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헌신에 존경·감사"…영암군, 국가유공자·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 맞아

영암군은 1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15일 영암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힘쓰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일한 분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그 유족이 명예와 자긍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진도 서망항, 봄꽃게 위판 '한창'

매일 3-4t…통발로 잡아 인기

전국 꽃게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에서 '봄 꽃게 잡이'가 한창이다. 〈사진〉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 조도면 외병·내병도, 관매도 등 해역에서 매일 20-30여척의 어선이 250-30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으며, 서망항에서는 조도산 봄 꽃게 위판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는 이날 현재까지 500여t, 위판고는 140여억원이다. 1일 위판량은 3-4t을 기록하고 있다.

진도군 조도면 해역은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고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군은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 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왔다.

또한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8일 기준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kg당 3-4만원으로 형성됐다.

김영서 선장(진도군 통발협회)은 "조도면 등 진도 앞바다는 싱싱하고 알이 꽉 찬 진도산 봄 꽃게 잡이가 한창"이라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초여름 싱그런 수국정원으로 오세요"

해남군, 김건영씨 부부 조성 4est 수목원서 수국축제

해남군 현산면에 위치한 4est(포레스트·사진)수목원에서 다음달 10일까지 한 달간 '2023 땅끝해남 수국축제'가 열린다.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4est수목원은 250여종, 9천여 그루가 식재된 2천600여㎡(8천평) 규모의 수국 군락지가 장관을 이루는 국내 최대 수국정원으로, 여름철 대표 힐링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해남군 현산면 봉동마을에 위치한 4est수목원은 식물학을 전공한 김건영씨 부부가 7년여에 걸쳐 조성한 곳으로, 6만여평 숲을 따라 1천400여종의 다양한 식물이 식재돼 있다.

인문학과 수목원의 만남을 주제로 동서양의 철학적 이상향이 담긴 소정원들이 다채롭게 조성돼 있다. 4est수목원은 숲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forest'에 별(Star), 기암괴석(Stone), 이야기(Story), 배울 거리(Study)라는 4개의 St를 즐길 수 있는 수목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사계절 꽃과 식물을 이용한 축제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름에는 숲길을 따라 각양각색 수국이 만개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입장료는 성인 5천원, 소인 4천원이다. /해남=박필용 기자

완도, 국비 확보 대응력 강화

박창환 道 정무부지사 '특강'

완도군은 11일 "최근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를 초청, '국고 확보 추진 전략 및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창환 정무부지사는 1998년 기획예산처 예산실 근무를 시작으로 2021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부 예산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강은 ▲국비 예산 편성 과정 ▲국비 사업 요구 시 사전 검토 사항 ▲국비 확보 전략 ▲사례 연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 정무부지사는 국비 요구 사전 절차 이행과 시기별 추진 과제, 지역의 강점 활용, 예산실 심의 절차와 방식 이해,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 등 국비 확보 전략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특히 정부의 시기별 예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완도=윤보현 기자